

매경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



기관투자가 서울 총집결 매일경제신문이 13일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KK)와 공동 개최한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I 2014)에 700여 명의 국내 & 전문가들이 참석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개회선언에 박수를 치고 있다. <김재훈 기자>

‘한국판 맥쿼리’ 키워 금융 퀀텀점프

국민연금·연기금 앞장서 투자 지렛대 역할

“한국판 ‘맥쿼리’를 키우기 위해선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 국내 주요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13일 매일경제신문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KK)와 공동으로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개최한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I 2014)’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입을 모아 밝힌 견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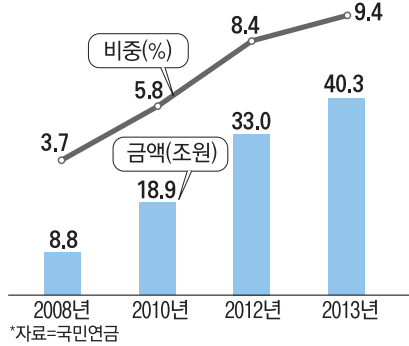
▶ 관련기사 A4·5면

이들은 “세계 3위 규모 430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공룡’ 국민연금이 지원사격에 나선다면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삼성전자’와 같은 경쟁력 있는 회사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투자를 비롯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해외 위탁운용사 선정 시 국내 운용사가 함께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글로벌 운용사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국내 금융투자 업계가 롤모델로 삼는 호주의 ‘맥쿼리’가 대표적 사례다. 호주에서 강제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도입을 계기로 호주 주요 연기금 운용자산 규모가 비약적으로 늘면서 맥쿼리도 동반 성장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 국내 운용사 관계자는 “2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해외 대체 투자에 국내 운용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국부펀드 퀀켄랜드투자공사(QIC)의 에이드러언 라이더 최고투

급증하는 국민연금 대체투자



자책임자(CIO)는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관투자자들 요구에 국민연금도 호응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를 비롯한 해외 투자 역량 제고를 위해 가동한 태스크포스(작업반)를 통해 국내 금융사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 최근에는 수출입은행과 공동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우수 보험사들과도 접촉해 해외 공동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양영식 국민연금 해외대체투자실장은 “해외 대체투자, 벤처펀드 투자 등을 통해 투자 자산 다각화에 나서는 한편 국내 금융사, 자산운용사와 함께 해외로 동반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취재팀

▶레이더M(RaytheM.kr) 보도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 투자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사모투자 펀드(PEF), 헤지펀드 같은 전문 투자자와 더불어 빌딩 등 부동산, 사회간접자본, 자원 등이 투자 대상이다.

개인회생 구멍 송송 고소득자 ‘대출먹튀’

5억 빌려 2억 탕감...악용 잇따라

대기업 차장인 김 모씨(44). 시중은행에서 대출 3억원을 받았는데 매달 600만원의 월급으로는 갚기가 다소 부담스러웠다. 일정액만 빚을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을 수 있다는 개인회생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변호사를 찾았다.

방법은 의외로 쉬웠다. 향후 5년간 30%만 갚으면 나머지는 변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게다가 신청 한도인 5억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고 최소 6개월만 정상적으로 갚은 뒤 회생을 신청하면 추가 대출에 대한 탕감이 가능하다는 편법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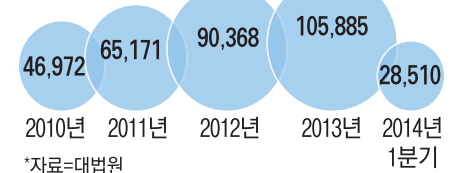
▶ 관련기사 A12면

김씨는 이 조언에 따라 부친 사업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빌린 뒤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고 2억원의 빚을 쉽게 탕감받을 수 있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다. 금융사 부채뿐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해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회사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소득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회생에 들어가면 채무자들은 이후로 빚 폭주를 받지 않게 된다.

2004년 도입된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40만명이 넘었다. 과도

급증하는 개인회생 신청(단위=명)



한 채무로 위기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다. 문제는 시행된 지 10년이 되자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에 들어가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식이다.

매일경제신문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접촉한 결과 이런 행태는 어렵지 않게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 서초동·명동 지역 변호사들은 수임료 100만~200만원이면 개인회생 신청을 대리해주고 있었다. 이들 변호사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위한 맞춤형 플랜도 준비해왔다.

한 변호사는 “대출 용처만 확실하게 기술했다면 개인회생을 받는 데 큰 무리가 없는데 용처는 잘 꾸미기만 하면 된다”며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은 데다 파산 등에 비해서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준다”고 밝혔다.

안정훈·송민철 기자

유병언 16일 피의자로 소환

3남매 연일 버티기...수사 난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마저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소환에 불응한 장남 대균 씨(44)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체포하는 데 실패했다.

▶ 관련기사 A31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영곡동 세모타운으로 불리는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대균 씨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관들은 체포영장을 갖고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 접촉을 시도했으나 집안에는 전혀 인적이 없었다.

대균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

혔으나 돌연 출석을 거부해 검찰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미국에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 씨(42)와 장녀 섬나 씨(48), 측근 김해경 한국제약 대표(52),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 역시 체포 영장이 발부됐지만 여전히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 일가 모두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면서 수사 장기화 가능성도 전락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 전 회장 가족이 수사 초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뒤집고 집단으로 검찰 소환에 불응함으로써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알려진 혁기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조 모 변호사는 지난주 사임까지 제출해 유씨 가족을 대변할 변호인조차 없는 상태다.

인천/지흥구 기자

브라질월드컵 D-30 기업마케팅 킷오프

브라질월드컵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산업계가 축구장 밖 ‘월드컵 전쟁’에 돌입했다. ▶ 관련기사 A8·9면

브라질월드컵을 계기로 20여 개국, 인구 6억명의 중남미 시장을 잡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에 전략 차종 HB20 시리즈를 판매 중인 현대차는 이번엔 중남미를 겨냥한 또 다른 ‘무기’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전격적으로 투입했다.

2014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월드컵은 6월 13일 오전 5시(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아레나에서 열리는 개회식 국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7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열전에 돌입한다. 손재권·임성현·정석환 기자

“예산·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을것”

차, 국무회의 장관들과 난상토론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 관련기사 A33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마하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연구·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만간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담화엔 국정 책임자로서 이번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 개조 수준의 개혁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례적인 휴일 수석 비서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대국민담화 내용을 가다듬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선 주로 세월호 관련 사후대책과 향후 안전 전사고 예방과 대처 방안, 안전문화 정착 방안 등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관료사회 척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혀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가재난 안전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관피아(관료

모피아) 척결을 비롯한 공직사회 혁신 방안 등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 조치가 광범위하게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대국민담화에 이어 이날 하순까지 차기 국무총리 지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개편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장기적 성장 모델 등 ‘국가전략 수립’의 기능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정부 기능의 ‘비정상의 정상화’로 공기업 개혁, 예산과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등 국정의 밑바닥부터 바꿔 할 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부처별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선결 기자

현대제철 앞 당진 송산2 일반산업단지 2-2공구



왜 대한민국은 송산2 일반산업단지에 주목할까요?

사통팔달 교통망부터 높은 항만 접근성까지 갖춘 최적의 인프라!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메카가 될 송산2 일반산업단지입니다.

- 산업의 중심!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 주요 철강사 연계 단지
- 입지의 중심! 교통, 물류, 항만이 완벽하게 갖춰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
- 신뢰의 중심! 국내 대표 건설사 대우건설의 책임시공으로 우수한 산업단지 건설
- 투자의 중심! 주변 단지 대비 우수한 분양가 경쟁력과 높은 지가 상승률

입주문의 1599-0177

www.songsan2.com

송산2 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충남 당진시 시청1로 71 진산빌딩 4층
T. 041)358-7456 / F. 041)358-7460